

學校設施의 複合化

Mixed-Use of School Facilities

李 和 龍*

Lee, Hwa-Ryong

1. 서 론

일반적으로 교육 성립의 3요소라 하면, 교사, 학습자, 교육내용들을 말하며, 이와 더불어 학교 시설은 교수·학습 내용과 교육 주객체인 교사와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는 그릇으로서 그 중요성이 전자의 3요소 못지 않게 강조되고 있다. 학교시설은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능률적으로 달성하는 물리적 환경이며, 학교의 모습은 교육 환경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 왔으며, 역으로 이러한 학교시설의 변화는 새로운 학습 형태를 조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교육인구의 증가와 교육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하에 교육 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으며, 1980년대에는 모든 교육 분야에 걸쳐 개혁을 추진하면서 중학교 의무 교육 확대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해 과밀학급 완화, 과대규모 학교의 분리, 2 부제 수업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이러한 학교 시설 확충 노력은 1980년 11,558교 학교수가 1990년 19,585교로 거의 2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확인되어진다.

그러나 양적 증가에 비해 보통교실 위주의 물량 중심 투자와 획일적인 학교 모습은 '20세기

학생이 19세기 교사로부터 18세기 학교 건물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였음도 사실이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학교 시설의 현대화 정책과 서울 불암초등학교의 열린학교 개념의 도입은 교육 공간의 질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교실이 교육에 적합하고 성장기 아동의 공간 체험을 통한 교육 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데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와 함께 두 차례에 걸친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화장실 개선, 교원 편의시설, 노후교실 증·개축, 책걸상 교체, 급수 및 난방시설 개선 등 지엽적이거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교육 수요의 변화와 사회적 변화는 교육시설 정책에 새로운 틀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세기의 정보·지식사회는 지구촌화, 중층화, 다핵화, 다원화, 질 중심, 녹색화 등으로 특성화되어진다¹⁾.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의 모습은 예전의 산업사회형, 지식주입형 학교 형태로만 남아 있을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21세기를 맞이하는 학교시설의 정책 목표를 '교육시설의 다양화와 복합화'에 그 정책 방향을 정하고 있다.

* 정회원, 교육부, 공학박사

1) 이명현, 신문법서설 : 다차원적 사고의 열린세계를 향하여, 철학과 현실사, pp.49-54, 1997.

2. 교육시설의 다양화와 복합화

2.1 다양한 학교·학급 모습

오늘날 교수·학습 환경은 전통적인 칠판 위주의 정적 공간에서 역동적이며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로 변해가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될 제 7차 교육과정은 학생의 학습 개인차를 고려한 단계형, 심화형, 과목선택형 등의 다양한 수업에 필요한 교실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창의력을 중요시하는 수업 형태에 부응할 수 있는 공간 창출은 기존의 보통 교실에 대한 크기 즉, 교실 규모가 20평이라는 획일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교실을 배치하고 또 각실의 융통성을 확보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또다른 학급모습의 변화 요인은 다양한 교수매체의 개발이다. 컴퓨터, 비디오, OHP 등의 기자재 설치와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의 확보, 그리고 유지 관리가 용이한 학교건축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정보 인프라 구축과 함께 컴퓨터실에 놓여 있던 컴퓨터들을 이제는 학생들이 접근이 용이한 교실내로 이동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교실 면적의 확충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학교 시설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또 시설 기준에 관련된 경직된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시설이용에 융통성을 부여, 학습 변화에 대응하게 하였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학교건축 구조 형식으로 채택되어 오던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철골구조, 층복의 이월 초등학교 등 일부 초등학교에 시범 건립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될 전망이다. 철골구조는 다양한 공간 확보가 용이한 동시에 학교 외관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리라 기대된다.

건축 외관의 변화 뿐만아니라, 도시로의 인구 이동과 대규모 택지개발 등의 경제·사회적 변화는 학교 형태를 전통적인 모습에 안주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즉, 교육부가 과밀교실해소 대

책으로 2003년 중간목표로 제시한 1학급당 최대학생수를 초등 및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래의 대규모 체육장을 가진 학교 형태에서 소규모학교, 여러학교가 공동체육장을 가지는 학교의 단지화, 지역사회 운동시설을 공유하는 학교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99년 교육부 정책연구과제로 환경친화형 학교 모형개발을 선정하여 에너지를 보존·절약하고 학생들의 환경교육장 및 정서 활동에 도움을 주는 학교 보급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황토 빛으로 황량하게 남아있는 학교 체육장에 여러 가지 학습·휴게·놀이공간을 조성하여 학교 부지 이용을 극대화하고자 학교교육외공간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위와 같이 학교시설 다양화 정책은 교육적 요구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 그 목표를 가진다면, 앞으로 소개할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은 학교 기능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구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이라 하겠다.

2.2 학교시설복합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다원화되어 가는 사회 구조와 학습사회로의 변화 과정에서 학교는 교수·학습의 장 본래의 목적외에 지역 사회 공동체의 중심(community centre) 및 평생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학교시설의 복합화는 이러한 시대적 경향에 대응하여, 학교가 학생들의 학습공간 뿐 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학습·문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학교의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2.2.1 학교시설복합화의 정의와 목적

「학교시설복합화」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이미 시행중인 학교시설정책에서 따온 용어이다. 일본에서는 학교시설복합화 정책이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있으며, 본 정책의 목적을 ① 지역사회를 위한 종합적 생애학습 기반 조성, ② 학교 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학교와 다른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데 있다고 문부성은 규정하고 있다²⁾.

현재 교육부가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는 일본의 정책 목적과 유사하나, 재정 여건 및 제도적 차이로 인한 그 추진 방향은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 정의와 목적을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가 규정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의 정의와 목적은 「광의의 지역사회의 열린학교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에 문화 공간, 스포츠 시설, 주민과 방과후 학생들의 학습 공간, 정보 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화된 시설을 기존의 교사 및 자원을 이용하거나 혹은 별도의 시설을 신축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공공시설로서의 기능과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래는 이러한 학교시설의 복합화 추진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개념들을 설명한다.

2.2.2 지역사회어로 「열린학교」

90년대이후 열린교육의 확산은 학습행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실 형태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고, 이러한 개방화의 추세는 학교를 지역사회에 열린 학교로의 발전을 요구한다. 지역사회에 열린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에 가정과 지역의 협력 관계 구조를 기초하고 있으며, 열린학교에 대한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관계는 교육의 위탁 관계가 아니라 어린이의 발달과제를 학교와 가정 및 지역사회가 서로 이해하고 발달과제에 대한 대응을 궁리해 가는 관계로 보는 데서 출발한다³⁾.

따라서, 열린학교는 전통적인 폐쇄된 학교의 반대 개념으로, 학생들의 지역사회 문화·스포츠 시설의 이용하여 체험학습과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역으로 학교시설을 지역사

회에 개방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 공간의 확장과 학교의 지역사회 봉사의 기능의 실현하고자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하겠다. 학교시설복합화 정책은 이러한 교육의 지역사회 역할을 강조하는 열린 학교를 실현하고자 하는 세부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시설 정책이다.

2.2.3 지역사회 공공시설로서의 기능

지역사회(community)는 도시 또는 지역을 구성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서, 공간지리적으로는 주로 페리(Perry)의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 이론에 따라 초등학교 1개정도 필요한 단위를 의미하며, 이때 초등학교는 근린주구단위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은 도시계획에서의 학교 설립에 대한 근거로서 활용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학교 실정은 이러한 모형과는 상이하게 산재·발전되고 있어, 우리실정에 맞는 공간지리적인 적정 학교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의 지역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최소의 공동체 정도로 추상적인 개념임을 밝힌다.

우리의 학교들도 예전부터 비상시에는 연병장 및 대피소, 평시에는 지역 주민의 운동회 및 투표소 등 행사·모임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근래에 들어 대부분 도시지역의 학교는 지역사회나 주민들에게 점차 폐쇄적 공간이 되었고 학교 역시 지역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다. 이는 도시생활의 익명성과 다양하고 복잡한 계층 구조와 그들의 관심사는 학교가 지역사회가 중심 기능을 담당하기는 불가능하게 하고 있어, 학교를 지역사회 중심시설(community centre)로 설정하는 것은 이론적 이상론에 불과하다.

따라서 학교는 기존의 시설 및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공공시설로서의 기능 및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의 끈을 유지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2) 일본 문부성문교시설부, '새로운시대의 교육시설', p.7, 1997.

3) 권이중외, 초·중등학교시설을 이용한 사회·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육부, 1996, p.25.

고취시키고, 지역주민의 문화·교육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 개인의 능력을 제고시키고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는데 일조 하도록 하는데 학교 시설복합화의 또 다른 목적이 있다.

2.2.4 학교를 이용한 평생학습

학교가 공공시설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담당해야 할 봉사기능 중 가장 기본적 기능은 주민계속학습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학습사회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사회의 귀속적 변수에 무관하게 자유로이 배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⁴⁾. 이러한 학습사회를 지향하는 평생 학습은 '학습자' 개념을 학령기 아동에서 성인 학습자까지 포함하게 되며,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학습, 학점은행제 등과 함께, 교육의 장(場) 역시 전통적인 학교에서 광범하고 비공간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교육 수요의 변화는 교육부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⁵⁾, 학교시설을 시간과 교육대상에서 열린 공간화하여, 방과 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지역교육·문화센터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만이 사용하는 폐쇄된 학교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교양장착, 계속교육, 취미교실, 정보획득 등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자아실현 등 행복한 생활을 도와주며, 지역 주민의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신뢰감을 가지게 하는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학교 시설 복합화는 이러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학교가 부담함으로써 별도의 평생학습장과 지역문화센터를 건립하지 않고 기존 학교 시설과 여유부지를 활용함으로써 학교가 담당해야 하는 3대 기능 중 하나인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데 일익을 하고자 하는 데 있다.

4) 최운실 외, '열린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교육 개혁과제', 한국교육개발원, p. 18, 1996.

5) 학교 개방 교육 프로그램에의 지역 주민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 83%가 '참여의사가 있다'¹⁾고 하여, 대부분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한 사회·직업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이종외, 초·중등학교시설을 이용한 사회·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육부, 1996, p.92.

3.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의 기초가 되는 열린학교의 구축은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1995.5.31)에서 제시되어 꾸준히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를 개방한 지역사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형 및 농촌형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평생교육체제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부족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한계를 주고 있으며, 학습 기능 이외의 주민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지역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학교시설복합화 정책은 이러한 학교의 역할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 확충에 중점을 둔다. 교지내에 복합시설을 두어 학생들의 특활활동 및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학습·문화 공간 확충하는 이중의 기대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정책이다.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3.1 복합화 시설의 유형 분류

복합화시설은 기존의 학교 교지에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거나, 교사의 여유공간과 방과 후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학교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자체 혹은 민간 위탁 운영 방식을 취하는 시설을 말하며, 학교 부지내 복합시설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들을 유형별로 구별하면 아래와 같다.

- (1) 근린공공시설: 동사무소, 탁아소, 영·유아보육시설, 경로당 등
- (2) 평생학습시설: 특별교실, 시청각실, 강당, 정보자료실(도서실) 등
- (3) 주민편의시설: 주차장, 소극장, 의원, 약국, 학원, 은행 등
- (4) 사회체육시설: 체육관, 실내수영장, 헬스클럽, 테니스, 탁구장 등

위의 시설들은 예시들에 불구하며, 각 단위학교 별로 지역특성, 학교유형, 대상자의 특성, 집단의 크기, 운영자의 교육철학, 인적자원, 학교시설 여건 등 다양한 변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복합화시설을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민간 운영을 계획한다면 신축비, 운영비 등에 대한 수익성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2 복합화 시설의 국내·외 사례

선진외국의 경우 일찍부터 지역사회학교(communitary school)이라는 개념 아래,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내에 강당, 극장, 체육관 등을 시설하여, 학생, 교사, 주민들이 시차별로 공용시설로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를 개방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복합화시설은 대도시 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어, 아직은 초기 단계라 하겠다.

국내 사례로는 서울덕수초등학교의 실내수영장, 성남대원초등학교의 지하주차장, 사립인 서울경북여자고등학교의 주차장 및 종교시설, 최근에는 서울 연천초등과 난향초등학교의 실내수영장 및 체육관 등이 있으며, 복합시설로는 주로 옥내주차장, 수영장과 체육관 등이 선호 대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서울 금호초등학교는 체육관, 교육문화회관, 소극장, 정보도서관 등을 갖춘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간적으로 연계되는 학교시설복합화의 대표적인 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해 자치단체로부터 일부 재원을 확보하였고, 완공 후 시설물 운영방식 역시 학교직영, 지자체 운영 및 민간위탁 등 다양한 방식을 계획하고 있어, 정책 추진에 시금석이 되리라 본다.

3.3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 추진 계획

학교시설 복합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

부에서는 '98년 정책연구 과제로 학교시설 복합화를 선정,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 연구에서는 복합화사업 추진의 실질적인 방안과 시설 운영방법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연구가 완료되면, 각종 홍보를 통해 본 정책을 널리 알리고 교육청 및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그러나, 본사업의 주체는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으로서, 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사업의 확산을 위해 서울 및 7개 광역시 각 1개교씩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총 700억(국고 580억, 민자 및 기타 120억)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교육발전5개년계획」에 포함시켰으며, 현재 2000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청과 협의하고 있다. 그리고, 각 교육청의 사업 결과를 시설행정의 평가 항목에 포함시킴으로서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 추진을 feedback 하는 과정을 두고있다.

3.4 정책 추진의 걸림돌 및 대책

학교시설의 복합화 사업은 통상적인 학교시설사업과는 달리 사업주체와 관리주체가 분산되고,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며, 업무의 가중 등으로 교육청과 학교장의 적극적인 자세가 없이는 추진이 곤란하며, 그리고 교육기본시설의 확충과 환경개선 사업 등에도 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재 재정 실정에서 지역사회 시설까지 교육자치단체가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인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추진상 걸림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교육재정 확충에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며, 그리고 재원을 다양화하고, 학교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수익사업 위주로 추진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3.4.1 재원의 다양화

IMF 체제하의 지방교육시설비 예산은 극도로 취약해져, 교육청에서 복합시설사업을 적극 추진

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며, 우선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 사업 중 도시재개발 학교와 농어촌지역 현대화사업에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학교시설의 복합화는 부족한 학습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민의 학습·문화 공간을 기왕에 도시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부지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자치단체의 재원, 민간 자본 및 각종 기금(예: 국미체육진흥기금 등)의 유입에 의한 주민시설의 신설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사업 추진의 관건은 얼마나 지방교육예산을 제외한 기타 재원을 투입하느냐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개발주체의 다양함은 이의 추진과정에서 재원배분, 수익금 배분, 운영 주체의 선정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복합화 시설의 확충은 지역단체장, 교육단체장 및 지역 주민의 긴밀한 이해와 협조 아래 추진되어야 하며, 사업 추진에 앞서 쌍방간의 명확한 협약서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현재 교육부에서는 연구진들로 하여금 표준협약서(안)를 준비하고 있다.

3.4.2 수익성을 감안한 복합시설 선정 및 운영

초기 시설비 재원뿐만 아니라, 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아래 이용자에게 일정액을 부담시켜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한 복합시설과 프로그램을 선정·개발하여야 한다. 가령, 읍·면 지역에 실내 수영장을 운영할 경우 수요자 부족에 따른 운영비 부족으로 시설을 방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시설 운영 역시 시설의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직영 혹은 민간 위탁 등 유리한 운영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3.4.3 법령 개정

학교시설의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통적인 학교시설의 규정부터 수정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시설사업에 근간이 되고 있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상의 학교시설물은 대지, 교사, 체육장·실습지 및 부속건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를 「학교 부지내의 학생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물」로 규정하여 좀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도록 하여야겠고,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동 법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복합화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자본의 유입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 제28조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규정에 복합화 시설에 한해 공공재산에 대한 사권(私權) 완화 규정을 두는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4. 결 론

학교시설 만큼 기술직공무원의 역할이 강조되어지는 건물은 없으리라 본다. 지난 50년간 수많은 학교들이 지어지면서 교육부 및 교육청의 기술직공무원들은 나름대로 교육시설 발전에 일조하여 왔으며 전문지식과 경험을 쌓아왔다. 그러나, 재원의 부족, 획일적 표준설계도 적용, 전문지식에 대한 소홀 등으로 교육시설 담당자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는 제한이 있어, 학교시설이 타용도 건물보다 기술적으로 뒤지고 있음도 사실이다.

학교시설에 대한 전문지식은 건축에 관련된 공통된 기술·지식이외, 교수·학습 내용, 학생들의 행태·심리 등 교육전문가에 못지 않은 교육에 대한 지식을 요구한다. 따라서, 교육시설에 관련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학생·교사들의 요구와 교육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나가야 하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교육시설정책으로 다양화와 복합화를 선정하여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 정책들을 소개하였고, 특히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의 정의와 목적들을 분명히 하였고, 본 정책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개념들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학교복합화 시설 유형과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여, 복합화 사업 추진에 도

움이 되도록 하였고, 사업 추진계획과 추진상 예상되는 걸림돌과 대책들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사업은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없이는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상호간 합심하여 사업재원을 다양화하고 학교관리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학교시설이 학생들의 학습공간이외에 지역주민의 공공시설과 평생 학습장으로 발전하도록 하여,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21세기에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 갈 수 있는 학습사회를 이루는데 그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여야겠다.